

현대약품공업(주)

‘안전지킴이 활동’의 성공적 운영사례

이번 탐방은 지난 1월 16일 화재위험관리 우수업체로 선정되어 『KFPA 화재안전인정^주』을 획득한 현대약품공업(주) 천안공장을 대전지부의 추천으로 방문하였다. 이곳에서 천안공장을 포함한 전 사업장의 안전을 총괄하고 있는 김인겸 안전자문역과 황이순 공장장을 만나 전사적 안전문화 정착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안전지킴이 활동’ 프로그램의 내용과 성과 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다.

글 | 오정규 협회 경영기획부 과장

주) 『KFPA(Korean Fire Protection Association) 화재안전인정』은 한국화재보험협회의 방재전문가들이 정밀위험진단을 실시한 후 심사를 거쳐 인증기준에 적합한 우수업체에 화재안전인정을 부여하는 제도로서, 인증업체는 화재보험 가입시 유리한 요율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안전을 최우선으로 천안시 풍서면 남관리에 소재한 현대약품공업(주) 천안공장은 고혈압 치료제인 테놀민 등 70여종의 의약품을 생산하고 있으며, ‘미에로화이바’, ‘헬씨올리고’ 등 건강기능음료를 생산하는 업체로 일반인에게 잘 알려져 있다. 이 회사는 이한구 대표이사의 ‘인간 존중과 인류건강 추구’라는 경영이념에 따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다. 지난 2002년 안전관리 원년의 해로 선포하고 안전활동에 대한 각종 동기부여와 시스템을 갖춰 2003년 4월에는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인 OHSAS18001를 획득하기도 하였다. 화재위험에 취약한 실험실과 연구소의 안전수준 향상을 위해 자체 평가단을 구성해 수시로 점검하고 있으며, 매년 외부기관에 2차례 이상의 점검을 받고 있다. 또한, 자율적 안전관리 프로그램인 ‘안전지킴이 활동’을 성공적으로 운영하여 지난 2003년 12월에는 안전경영대상에서 국내 제약업체로는 처음으로 중소기업부문 대상을 차지하기도 하였다.



(좌)한국화재보험협회 명원철 상무이사 (우)현대약품공업 황이순 천안공장장

‘안전지킴이 활동’이란 현대약품공업의 전체 근로자들이 펼치고 있는 안전지킴이 활동은 일종의 제안제도이다. 누구든 유해위험요인이나 작업환경 개선사항, 앗차사고 사례 등을 접한 즉시 전산의 지정된 코너에 내용을 게재하면, 이후 안전관리위원회에서 판단한 후 개선계획을 수립·실행한다. 안전관리위원회는 팀별로 10명으로 구성되었으며, 매주 1번씩 정기적으로 모임을 갖고 안전문제나 현장관리, 애로사항에 대해 토의한다. 그 내용은 최고 경영진에게 곧바로 보고되며, 전산시스템을 통해 전 사원에게 공유된다.

‘안전지킴이 활동’의 성과 지난 해 현대약품공업(주)의 안전지킴이 등재건수는 총 847건이며, 전체 누적 건수로는 3,500건에 이르고 있다. 특히 앗차사고 사례는 방지할 경우 큰 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전 사업장에 그 내용을 공유하여

“무섭지만 할 수 있어요~~”



현대약품공업은 전 직원을 대상으로 소방학교에서 소방훈련을 주기적으로 실시한다.

안전사고 예방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안전지킴이 활동’은 지난 2003년 3월 이한구 대표이사의 제안에 따라,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김인겸 자문역이 도입한 시스템이다. 그는 “자율적 안전관리 원칙을 확립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결국 안전은 스스로 지켜야 한다는 의식이 가장 중요하죠.”라고 강조한다. 한편, 황이순 공장장은 다수 제안자나 우수지킴이 제안자를 매월 초 선출하여 포상함으로써 참여 동기를 북돋우고 있다고 귀띔한다.



경영자의 의지가 가장 중요 안전지킴이 활동’이 처음부터 성공적으로 운영된 것은 아니다. 10년 가까이 무재해 기록을 달성하고 있던 2004년 초, 한 직원이 작업 중 손가락 협착사고로 오른쪽 검지 살점 일부가 떨어져나가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당시 안전관리 담당직원은 경미한 사고이므로 회사 이미지를 고려하여 무사고로 처리하고자 했으나, 이한구 대표이사는 10여 년간 공들여 쌓아온 무재해 기록을 과감히 포기했다. 형식적인 무재해기록보다는 사실적인 안전관리 운영을 하겠다는 마음가짐이 중요하다는 판단에서였다. 이후 형식적이던 안전지킴이 활동이 점차 활력을 띠기 시작했다. 대표이사가 직원들의 제안 내용에 일일이 의견을 첨부하며 높은 관심을 보이자, 시큰둥해 하던 직원들도 적극적으로 의견개진을 하기 시작해, 지금은 월평균 70여 건의 각종 제안이 이루어지고 있다.

안전관리 담당직원은 경미한 사고이므로 회사 이미지를 고려하여 무사고로 처리하고자 했으나, 이한구 대표이사는 10여 년간 공들여 쌓아온 무재해 기록을 과감히 포기했다. 형식적인 무재해기록 보다는 실제 운영과 마음가짐이 중요하다는 판단에서였다.

협회가 실시하는 위험관리에 대해 김인겸 안전자문역은 “KFPA 화재안전인정」을 받는 과정에서 처음 협회를 알게 되었다.”며,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이 협회와 같은 방재전문기관의 도움을 더욱 필요로 하고 있다.”고 말한다. 또한 ‘협회에서 무료로 매

년 실시하는 안전점검의 대상이 법에 의한 특수건물 규정에 따라 공장의 경우 3,000㎡ 이상의 규모에만 해당되는데, 그보다 작은 규모의 공장들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배려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인간존중과 인류건강 추구’라는 경영이념 하에, 사고율 제로를 이루기 위해 전 직원이 합심해 안전의 생활화를 실천해 나가는 현대약품공업(주)이, 대한민국 중소기업의 안전관리 모델로 우뚝 서길 기대해 본다. (☺)

